

# 원작 읽고 영화 보고 토론하고

## '20세기 소설영화독본'

### 고전~현대 작품까지 4년간 90편 다뤄 격주 수요일 모임... 회비 없이 참여 가능

독서 모임은 많다. 영화 모임도 제법 된다. 한데, 책 읽기와 영화 보기를 함께 하는 모임은 드물다. 한편의 소설과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를 함께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20세기 소설영화독본'(이하 영화 독본)은 그래서 반갑다.

취재하면서 회원들이 읽고 본 작품 100여편을 일람했다. 발자크부터 필립 K디까지. 고전과 현대를 아우르는 작가들의 작품 목록에 부럽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읽고 싶었던 책, 보고 싶었던 영화도 있었고 "이 소설이 영화로도 만들어졌었네" 또는 "이 영화의 원작이 소설이었네" 싶었던 것도 있다.

모임은 매월 격주 수요일 오후 7시 광주 시청자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린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회비도 따로 없다. 공지된 책을 읽고, 함께 영화 볼 마음만 가지고 오면 된다. 모임을 이끄는 이는 회원들이 "피가 도는 게 아니라 필름이 돌아가는 사람, 영화로 숨쉬는 사람"이라 일컫는 지역 영화관의 산증인 조대영(광주독립영화 대표)씨다.

취재차 방문한 23일 함께 한 책과 영화는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 로버트 레드포드가 주연을 맡은 1974년판 영화 상영 후 토론이 이어졌다.

"자막을 보니 '대부'를 만든 프란시스 포드 코플라 감독이 각색을 했더라. 원작과 얼마나 다른 느낌으로 각색했을까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 영화적 상상력도 생각해봤고." 조대영씨가 물꼬를 트자 회원들의 이야기가 자연스레 이어졌다.

"원작의 느낌, 캐릭터의 생동감 등에서 다카프리오판(2013년 작)이 더 좋았던 것 같다." "스무살, 서른살, 그리고 서른 아홉인 지금까지 모두 3번을 읽었다. 모두 다른 느낌이었다." "개츠비와 위대한개츠비 생각해 보면 꿈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갔던 힘이 사랑에 대한 본질이 아니라 환상에 빠져 있던 것 같다. 정신적인 가치와 물질적인 가치가 부딪치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1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된 토론은 자유분방했다. 배우들에 대한 품평도 이어졌고, 심도 있는 분석도 있었다. 열린책들, 민음사, 팽귄 클래식, 문학동네판까지 각 출판사판본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출발은 지난 2011년 1월 19일, 니코스 카잔차키스 원작, 안소니 퀸 주연의 '그리스인 조르바'였다. 모임 시작 전에는 김형중(조선대 국문과)교수를 초청, '원작 소설과 영화'를 주제로 특강을 들었다.

회원은 출발부터 함께 한 이부터 서너번 모임에 나온 이까지 15명 정도가 자유롭게 참여하고 있다. 주부, 회사원, 의사, 교사 등 다양한 직종의 30~60대다. 회원들은 "영화와 소설의 관점과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다각도로 살펴 볼 수 있어 좋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새로운 시각을 접할 수 있어 흥미롭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모임을 통해 관심사가 계속 확장되는 게 큰 즐거움이다. 마이클 커팅햄의 '세월'과 그 소설을 영화로 만든 '다 아워스'를 보고 난 후 작품의 주인공인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를 찾아가고 그녀의 작품 '델러웨이 부인'까지 함께 읽는 식이다. 또 영화와 책을 볼 때 편식이 심했었는데 모임을 통해 작품을 접하는 폭이 넓어진 것도 의미였다.

함께 할 작품은 조씨가 기본적으로 리스트업을 한 후 회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한다. 그해 가장 좋았던 영화 10편을 꼽아 이야기를 나누는 송년모임 '올해의 영화 베스트 10'은 회원들이 가장 기다리는 행사다. 모임이 지속되는 건 조씨의 역할이 크다. 영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돋보이지만 그는 무엇보다 영화를 사랑하고, 영화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사람이다.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이 모임은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지지 않아야겠죠.(웃음) 모임을 통해 제가 오히려 많이 배웁니다. 함께 한 작품들이 하나 하나 쌓이는 게 뿌듯합니다."

조씨는 "10년 정도 지났을 때 책도 내보고 싶다"고 말했다.

"어떤 결론은 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을 마음껏 이야기 할 수 있어 좋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여유가 생겼다." "다양한 분야의 감수성을 받아들일 수 있어 좋다." "사람은 변하기 어려운데 여기서 본 영화와 소설, 그리고 사람들의 인간적인 매력은 나를 움직이게 하더라." "회비가 없고, 어떤 규제도 없는 것도 좋다. 끝나고 하는 맥주 타임도 좋고." 회원들이 이야기하는 '영화 독본'의 매력이다.

모임 카페(cafe.naver.com/20reading)에 가면 함께 한 책 목록과 토론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다. 문의 017-660-579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소설을 읽고, 그 영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를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20세기 소설영화독본' 회원들은 지금까지 90여편을 섭렵했다.



### 2014년 '20세기 소설영화독본' 작품 목록

날짜	소설/영화	원작자	감독
1.8	마이내러티브 리포트	필립 K. 딕	스티븐 스필버그
1.22	세월(다 아워스)	마이클 커팅햄	스티븐 달드리
2.5	첫사랑	트루제네프	맥시밀리안 헬
2.19	1984	조지 오웰	마이클 레드포드
3.5	검은 옷을 입은 신부 (비련의 신부)	코넬 울리치	프랑스와 트뤼포
3.19	적과 흑	스탕달	클로드 오명리라
4.2	나귀가족(비디오드롬)	오노레 드 발자크	데이빗 크로넨버그
4.16	진밀감(정사)	하니프 쿠레이시	파트리스 셰로
4.30	파이 이야기(라이프 오브 파이)	얀 마텔	이안
5.14	오만과 편견	제인 오스틴	조 라이트
5.28	도메가로 기억을 팝니다 (토탈리콜)	필립 K. 딕	폴 베호벤
6.11	블랙 달리아	제임스 엘로이	브라이언 드 팔마
6.25	25시	개오르규	앙리 베르외유
7.9	바다의 침묵	베르코르	장 피에르 멜빌
7.23	위대한 개츠비	스콧 피츠제럴드	잭 클레이튼
8.6	나귀가족(비디오드롬)	오노레 드 발자크	데이빗 크로넨버그
8.20	인생의 베일(매인티드 베일)	서머셋 음	존 캐런
9.3	책 읽어주는 여자	레몽 장	미셸 드넬
9.17	질시-어느 섹스 중독자의 초상	척 팔라니	클락 그레그
9.31	정미의 이름	움베르토 에코	장 자크 아노
10.15	실독	제인 오스틴	로저 미첼
10.29	웃는 남자	빅토르 위고	장 피에르 에메리
11.12	카운슬러	코맥 매카시	리들리 스콧
11.26	읽어버린 지평선	제임스 힐튼	프랭크 카프라
12.10	여인의 초상	헨리 제임스	제인 캄피온
12.17	2014영화베스트 송년모임		

## 지역문화진흥 5개년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와 고유문화 발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역문화 진흥 계획 수립 및 시행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무대행 김희범)는 28일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통과에 따라 29일부터 각 지자체와 연계해 이 같은 진흥계획 입안 및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후 각 지자체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이를 기반으로 각 지역마다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문화재단 및 문화예술위원회 설립, 지역문화진흥기금 조

성 등 구체적 지원 사업을 벌이게 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문화진흥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며 "특히 사업의 환류 및 협력 체계가 마련되어 지역현장에 기반을 둔 사업 기획과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구체적으로 각 지역 특성에 따라 주민들의 문화예술활동 및 동호회 활동 지원은 물론, 각 대학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등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지역마다 특화된 문화도시 지정 및 지원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의경-산조'

## 우리 가락, 폭포처럼 쏟아지네

### 수하갤러리, 박홍수 조선대 교수 '의경-산조'전

우리 소리 한 대목이 화폭을 오간다. 귀로만 들던 소리가 어느새 시각화돼 폭포처럼 쏟아진다. 쏟아져 내린 소리는 다시 꽃으로 피어난다. 형형색색 꽃들은 각기 다른 소리를 내면서 깊은 울림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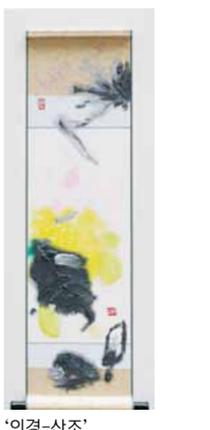
동명동 수하갤러리는 오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조선대 미술학과 박홍수 교수를 초대해 '의경-산조'(意境-散調)를 주제로 전시회를 연다. 박 교수는 전통 소리의 개념을 화폭에 투영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박 교수는 자연의 소리와 그 화음, 우리

가락을 화폭 위에 옮겨낸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에서 찾아낸 강약과 고저가 필묵과 혼합재료로 표현됐다.

때로는 거칠게 뻗기도 하고, 때로는 맑고 청아하게 안기기도 한다. 정형화되지 않은 빛의 움직임은 작품에 운율을 더해준다.

조선대 미대와 대학원을 졸업한 박 교수의 21번째 개인전이다. 박 교수는 의재미술상 특별상, 무등미술대전 대상, 광주시미술대전 대상 등을 수상했다. 문의 062-226-8484.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의경-산조'

since 1982

##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트라이슈머**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트라이슈머® 20년은 가는 데!!**  
**단열복합시트방수**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물디자인으로 바뀌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달린트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